

이들은 “수사당국은 우리 아이들의 목숨엔 만큼 철저히 한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불발이 되더라도 알뜰하게 추궁하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진상조사점수 형에는 이종태 법치주의비료세우'행동연대 대표, 김진성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박은희 차세대비료세우'학부모연합 공동대표, 주요섭 자유인권실천국민운동 공동대표, 한효과 건강한국'물어문'국민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임시총회에서 6개 교단 가입 인준

한교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삶 선택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대성 목사는 지난 5월 6일(목) 오후 1시 가평 힐링센터 예배실에서 제10회기 2차 임원회와 10~1차 실행위원회, 10~1차 임시총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총회(총회장 심하보 목사)를 비롯해 1개 교단 5개 단체를 신임회원으로 인준했다.

대표회장 송대성 목사의 사회로 열린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예장 총회 교단 외에 한국교회세종운동연합회(대표회장 김경철 목사), 한국기독교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김승경 목사), 상부교회 대표(신명성 원장), 사단법인 크리스티안네이(대표회장 신동호 목사), 재미 제단법인 교회재건운동본부(대표회장 최요한 목사) 등 5개 단체가 새로 가입이 확정됐다. 이로써 한교연 가입 교단은 38개 단체는 19개로 늘었다.

이제 앞서 열린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의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는 상임회장 김학철 목사가 대표기도 한 후 '나라와 민족을 위해'(최철호 목사), '한국교회와 선교사역을 위해'(홍정자 목사), '코로나-19 종식과 자유 회복을 위해'(박민진 목사) 각각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상임회장 김효종 목사가 '우리의 더 나은 삶'(벤전 3:13-17)이란 제목으로 설교

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재물이나 목숨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정말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주는 삶이다. 우리가 목표로 삼은 그 어떤 소중한 가치도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다"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욕심은 버리고 한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세기총, '어르신 섬김' 9회기 시작

대체식과 함께 지팡이와 손전등 등 선물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심평중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이 제9회기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으로 9회기 첫걸음을 내딛었다.

세기총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와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미얀마 지회장 김균배 선교사는 지난 5월 4일(화) 서울시 마포구 소재(사)해돋는바를 노인대학, 신명당나눔교회(담임 장현일 목사)를 찾아 특별에 감사하는 어르신들에게 대체식과 함께, 지팡이와 손전등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시간 간격을 두고 어르신들이 교회를 방문해 대체식(식사 주머니)과 선물을 받았으며 기동기 불평한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봉사자들이 방문해 대체식과 선물을 전달했다.



세기총은 매년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을 아끼아를 앞두고 있어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한 대체식과 지팡이와 손전등 등 선물은 소경자 목사(세이렌교회)와 세

기총 임원 및 후원이사들의 협력으로 준비됐다.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는 거동이 불편해 교회로 찾아오지 못한 어르신(92세)을 직접 방문해 대체식과 선물을 전달하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꼭꼭 기도하겠다고 했다.

새로남교회, 예자연에 특별성금 전달

오정호 목사, "예배의 자유를 끝까지 사수하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는 지난 5월 2일 주일 동교회에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특별성금으로 5천만원을 전달했다.

오정호 목사는 성금을 전달하며 "현재 한국교회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가 제한되고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더욱 새로남교회가 중심으로 잡고 나

가야 한다"라며, "교회에 예배를 잃어버리면 부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한국교회에서 예배가 잘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길 것을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오 목사는 이어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어서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지키며 내지"라며, "이 일을 위해 예언이 여러 방면 소송과 예배를 수호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예언을 믿는 손길이 많이 지면 좋겠다. 새로남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예배의 자유를 끝까지 사수하는 양교회를 되돌아보고 기도"라고 말했다.

김영길 사무총장(예자연)은 이날 새로남교회에서 "교회학" 코로나 실체와 현재 미지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나라사랑국민연합, 수요기도회 개최

코로나 감염병 극복, 국가의 안정을 위해 기도

나라사랑국민연합대표회장 한정수 목사, 이하 나사연은 지난 5월 6일(수) 오전 11시에 서울 강남구 삼성로 112길 50(한성동) 일문교회에서 수요기도회를 개최하여 일차와 연합을 통해 국가의 안정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제1부 예배는 사무총장 정대수 목

의 사회로 한상수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이경현 장로의 성령강도, 오세희 찬양선교사 제언의 권사의 특송, 김전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전영 목사는 찬양 17:46-47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와"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김 목사는 "다윗은 그

위대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전하고 "첫째 다윗은 성령충만했다. 둘째 다윗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은 평소 애이같이 있는 다윗을 쓰셨다. 셋째로 다윗은 전쟁을 해남게 속한 것이었고 만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송기 찬양사역자의 헌금, 이회연 목사의 봉헌기도, 특별기도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회연 장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송병호 목사, 대통령과 정치인을 위하여' 김경평 목사, 기독교기관과 대표들을 위하여' 이기복 목사, 한국교회와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이순호 목사, '세계선교와 북한 선교를 위하여' 김중호 목사, 나라사랑국민연합의 성장을 위하여' 김진초 목사가 각각 기도했다.



모잠비크·과테말라에 성령 기증

김영례 권사와 왕보람 대표의 후원으로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5월 6일(목) 김영례 권사와 왕보람 대표의 후원으로 모잠비크에 '세이아 신약' 2,500부, '소나아 성경' 3,000부, '지체없이 성경' 3,000부를, 최정희 권사, 문현선 집사, 문현선 집사의 후원으로 과테말라에 '세이아 신약' 688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다.

이런 기증식에서 김영례 권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최정희 권사님 가정과 함께 모잠비크와 과테말라에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경이 전파되는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간증을 밝혔다.

모잠비크 성서공회 발렌티 세로 총무는 영상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경

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를 되찾고 상처를 치유받을 것입니다"라고 기뻐드리고, 과테말라성서공회 사울 소사 총무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성경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2021년 1월 대

통령이 '모잠비크를 건국하며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고 고향에 빠져 있다. 모잠비크성서공회도 성경 보급과 함께 태풍으로 큰 손상을 입어 성경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아래에 위치한 과테말라는 인구 1,600만 명이 국가들과 함께 정치



예총연, 제16회 춘계수련회 성료

코로나19 종식과 한국교회의 회복 위해 기도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김경희 목사)는 지난 5월 6일과 7일 양일간 충북 충주 수안보신록호텔에서 제16회 춘계수련회를 개최하고 믿음의 전진갑주를 입고 세상구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 회원으로 참석할 가운데,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열렸다. 예총연의 춘계수련회는 매년 3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규모가 큰 행사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부터 더욱 규모를 축소해 진행 중이다. 물론 예전에 비해 그 규모와 인원은 건줄 수 없지만, 수련회에 임하는 목회자들의 열정과 기도는 더욱 빛나고 있다. 이날 코로나의 종식과 한국교회의 회복, 국가의 인본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

'빛의 감옥을 입지' (롬 13:11-14)라는 주제로 열린 춘계수련회는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참된 믿음과 위기를 기회로 이끄는 신의 리더십에 대해 집중탐구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담긴 위

기는 초대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의 타락과 결국 무관한지 않다"라며 "예총연이 앞장서서 교회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지주하심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실크로드기금 공동집행회장 취임식

박항진 총재, "일자리 창출과 수출로 최고의 기회 만들 것"



WK뉴딜국민그림은 박항진 총재 실크로드기금 공동집행회장 취임식과 키트키스탄 국제 예술가들이 재능기부 이자마트를 초청

가부부와 장자'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4월 29일 오후에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WK뉴딜국민그림은 코로나 팬데믹을 다

한게 극복하고 'K-방역' 제품을 세계에 수출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된 76명의 초청자와 함께 한 행사는 황우여(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한노인회 중앙회 김호일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과 해외 국제 예술가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박항진 총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대한노인회 김호일 총재의 내빈 축사, WK뉴딜국민그림 소개와 WK뉴딜국민그림을 발주해, 예술가 소개 영상, 예술가 작품 소개, 취임식, 실크로드기금에 대한 소개, 취임식, 감사 및 포상 수여, 환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성경 속 경영원리' 제37기 기독교경영아카데미 개강

'하나님과 온택트' 5.11~7.13 매주 화요일 총 10주 과정

기독교경영아카데미는 제37기 기독교경영아카데미를 개강한다. 세상에 가깝고 사업을 성경적으로 운영하기는 가능할까? 성경 속에는 어떠한 경영원리가 들어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전지하게 묻는 경영자, 직장인, 대학생, 예비 창업자 크리스천을 위해 기독교경영연구원장 이형재 이하 기경원(이)서원길 반석 기독교경영아카데미를 개강한다.

기독교경영아카데미는 성경에서 찾은 6가지 핵심 경영원리(영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를 배우고, 이를 경영 현장 및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원하는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경원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이다.

먼저 '영조'는 하나님의 창조와 동역자로서 가치 창출활동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원리를 배운다.

이어 '책임'에 대해 하나님의 향기로서 조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이해관계자 전체의 가치에 부응하는 원리를 배운다.

'배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원리를 배우며 '공의'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원리를 가르친다.

'신뢰'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행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원리를, '안식'은 하나님께 주신 영적·정서적·육체적 힘과 평안을 누리며 원리를 배우게 된다.

생명의 말씀



이용호 목사

· 한복림 지도위원
· 서울영철교회 원로

가정이 살아야 모두가 산다

시 128:1~6

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도

최근에 가장 많이 보도된 뉴스는 코로나19와 이동제한 시간입니다. 코로나는 방역이나 백신 접종 등으로 극복해 가는 현상이지만 이동제한 시간은 반대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이동보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매년 10~15% 정도로 이동제한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가해자의 97%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부모, 양육대리자 친인척
▶ 가해가 발생하는 장소의 82%가 가정
▶ 가해행위는 신체·정서·성 학대, 방임, 유기 등

▶ 2018년에는 중폭 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 1세~14세까지 주피해자

▶ 6세 이하가 23%, 1세 미만 영아도 2%

이동제한은 가정 문제의 일부입니다. 사실은 가해 어른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가해 어른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동제한은 그

치지 않을 것입니다.

출산을 저하, 비혼율, 이혼율, 독신 가정, 고령화 증가 등 심각한 가정문제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어 있습니다. 가정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1.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가정 건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과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크리스천 중에도 믿지는 않지만 사는 자세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

나이가 장년이 될 거 아니냐고 그 사건 이후로 제2, 제3의 나이가, 장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도록 공짜로 사들이는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성직자 가정에서도 발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리고 교회의 신임을 상정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

습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의심과 그 말씀을 따르는 바른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2. 성경적인 가족관의 확립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2)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정의와 공정과 질서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불의한 소득, 불공정한 지위와 명예, 불법적인 성공 등은 가치관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면서 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는 가정이야 공적에 세우려야 합니다.

3. **축복의 언약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
"네 자식의 자식을 붙이지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도" (3)

우리는 당대만 보고 살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와 후손에게까지 포함된 언약입니다.

몇개월 전 장인이 묘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10여 명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수목원 원장과의 대화에서 수만 명이 방문한 것과 그들 대부분이 학대 경험자로 상처가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과 심지어 가해 아버지의 어머니도 다녀갔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학대가 대물림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악의 소굴이 된 가정을 축복의 대물림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요 성도 각자의 삶의 가치라는 사명입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크리스천의 행복의 요건으로

1)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과
2) 은혜로운 교회를 섬기는 것과
3)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 합니다.

서론에 이런 책이 있어 좋게 될 경우 일이나 많은 순진한 아이들이 왜곡된 이념 선전물에 오염되어 결과적으로 희생되었는가?

셋째는 역사관이 훼손될 것이다. 이런 저급 한타지 같은 것들도 인정하지는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온 주장으로, 소위 '내재적 접근'을 말한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주장이다. 이런 것까지 받아들인다면 역사 해석은 엉망이 될 것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는가?

넷째는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킨 특급 전범이다. 그가 일으킨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김일성의 회고록 내용은 왜곡과 날조를 우리 땅에서 발행한다는 것은 그의 범죄행위를 용납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부는 이런 책이 출판된 동기를 파악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과 학부자들은 이런 이적물로 인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왜곡되고 날조된 출판물에 의한 역사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론에 이런 책이 있어 좋게 될 경우 일이나 많은 순진한 아이들이 왜곡된 이념 선전물에 오염되어 결과적으로 희생되었는가?

셋째는 역사관이 훼손될 것이다. 이런 저급 한타지 같은 것들도 인정하지는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온 주장으로, 소위 '내재적 접근'을 말한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주장이다. 이런 것까지 받아들인다면 역사 해석은 엉망이 될 것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는가?

넷째는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킨 특급 전범이다. 그가 일으킨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김일성의 회고록 내용은 왜곡과 날조를 우리 땅에서 발행한다는 것은 그의 범죄행위를 용납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부는 이런 책이 출판된 동기를 파악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과 학부자들은 이런 이적물로 인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왜곡되고 날조된 출판물에 의한 역사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론에 이런 책이 있어 좋게 될 경우 일이나 많은 순진한 아이들이 왜곡된 이념 선전물에 오염되어 결과적으로 희생되었는가?

셋째는 역사관이 훼손될 것이다. 이런 저급 한타지 같은 것들도 인정하지는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온 주장으로, 소위 '내재적 접근'을 말한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주장이다. 이런 것까지 받아들인다면 역사 해석은 엉망이 될 것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는가?

넷째는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킨 특급 전범이다. 그가 일으킨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김일성의 회고록 내용은 왜곡과 날조를 우리 땅에서 발행한다는 것은 그의 범죄행위를 용납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부는 이런 책이 출판된 동기를 파악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과 학부자들은 이런 이적물로 인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왜곡되고 날조된 출판물에 의한 역사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론에 이런 책이 있어 좋게 될 경우 일이나 많은 순진한 아이들이 왜곡된 이념 선전물에 오염되어 결과적으로 희생되었는가?

셋째는 역사관이 훼손될 것이다. 이런 저급 한타지 같은 것들도 인정하지는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온 주장으로, 소위 '내재적 접근'을 말한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주장이다. 이런 것까지 받아들인다면 역사 해석은 엉망이 될 것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는가?

넷째는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킨 특급 전범이다. 그가 일으킨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김일성의 회고록 내용은 왜곡과 날조를 우리 땅에서 발행한다는 것은 그의 범죄행위를 용납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부는 이런 책이 출판된 동기를 파악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과 학부자들은 이런 이적물로 인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왜곡되고 날조된 출판물에 의한 역사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론에 이런 책이 있어 좋게 될 경우 일이나 많은 순진한 아이들이 왜곡된 이념 선전물에 오염되어 결과적으로 희생되었는가?

셋째는 역사관이 훼손될 것이다. 이런 저급 한타지 같은 것들도 인정하지는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온 주장으로, 소위 '내재적 접근'을 말한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주장이다. 이런 것까지 받아들인다면 역사 해석은 엉망이 될 것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는가?

넷째는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킨 특급 전범이다. 그가 일으킨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김일성의 회고록 내용은 왜곡과 날조를 우리 땅에서 발행한다는 것은 그의 범죄행위를 용납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부는 이런 책이 출판된 동기를 파악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과 학부자들은 이런 이적물로 인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왜곡되고 날조된 출판물에 의한 역사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론에 이런 책이 있어 좋게 될 경우 일이나 많은 순진한 아이들이 왜곡된 이념 선전물에 오염되어 결과적으로 희생되었는가?

셋째는 역사관이 훼손될 것이다. 이런 저급 한타지 같은 것들도 인정하지는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온 주장으로, 소위 '내재적 접근'을 말한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주장이다. 이런 것까지 받아들인다면 역사 해석은 엉망이 될 것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는가?

넷째는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킨 특급 전범이다. 그가 일으킨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김일성의 회고록 내용은 왜곡과 날조를 우리 땅에서 발행한다는 것은 그의 범죄행위를 용납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부는 이런 책이 출판된 동기를 파악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과 학부자들은 이런 이적물로 인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왜곡되고 날조된 출판물에 의한 역사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론에 이런 책이 있어 좋게 될 경우 일이나 많은 순진한 아이들이 왜곡된 이념 선전물에 오염되어 결과적으로 희생되었는가?

셋째는 역사관이 훼손될 것이다. 이런 저급 한타지 같은 것들도 인정하지는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온 주장으로, 소위 '내재적 접근'을 말한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주장이다. 이런 것까지 받아들인다면 역사 해석은 엉망이 될 것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는가?

넷째는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킨 특급 전범이다. 그가 일으킨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김일성의 회고록 내용은 왜곡과 날조를 우리 땅에서 발행한다는 것은 그의 범죄행위를 용납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부는 이런 책이 출판된 동기를 파악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과 학부자들은 이런 이적물로 인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왜곡되고 날조된 출판물에 의한 역사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동 정

나사렛대학교 직업재활관 개관



나사렛대학교(총장 김창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기관인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내에 '나사렛대학교 직업재활관'을 개관했다고 지난 5월 4일(화) 밝혔다. 센터 내에는 의류패장사(15명) 등 8개의 직업재활관이 있으며 나사렛대학교 직업재활관은 사무원직을 체험할 수 있다. 문의: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041-549-6880)

한국성명의전화 신임 이사장 강용규



한국성명의전화는 지난 5월 11일(목) 서울 서초구 한신교회에서 열린 이사장 취임식에서 강용규 목사(한신교회)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강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엄중해진 시기에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소명을 다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신대 새 이사장에 김기철 목사



충신대학교(총장 이재서) 법인(재단)이 시종 지난 5월 11일(화) 정 이사장 체제 이후 두 번째로 가진 모임에서 김기철 목사를(성광교회)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충신대 사정(사정)에서 모인 충신대 이사회는 김 목사와 정장수 목사(대명교회)를 후보로 투표를 진행했고 김 목사가 8표로 얻어 당선됐다.

연탄은행, 아버지 섬김 행사



사회복지법인 발상 공동체·연탄은행대 표 하기복 목사는 지난 5월 17일(일) 서울 노교구 중계본동 박사 마을 연탄교회에서 바이 행바꾸리미 나눔 행사를 열었다. 영세하고 고령층이 대부분인 연탄 가구들을 위해 연탄은행이 마련한 집콕, 용산 등 먹거리와 마스크, 알코올티슈 등 방역용품, 이불과 수건 등 생활필수품이 주머니에 담겨 나누어졌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김일성 회고록은 역사 왜곡의 전형이다

최근 전쟁범죄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가 발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를 출판한 측은 이 기록은 (김일성)이 1920년대 말엽부터 1943년 해방의 그날까지 20여 년간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싸워 온 투쟁기록을 고스란히 녹여 낸 진술한 내용을 수록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주장한다.

북한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1900~30년대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김일성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1900년대 만주에서 항일 전투를 하다 전사한 분 가운데 조선 말 정의부(正義) 소수의 김일성이 있다. 그리고 함경도 단천 출신의 김성도 의병장도 김일성 정권으로 호칭된다. 그런가 하면

1937년 보천보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동북 항일 연합군 제사단장도 김일성이다.

또 만주에서 항일 운동하다 동사(東死)한 김일성이 1922년 일본 유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소련군 정교로 항일 연합군 제1로군 제정(正)장도 김일성, 이분은 1940년 33세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소련군 대위였던 김성주가 갑자기 김일성으로 둔갑했다. 과연 그가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인가?

김일성의 회고록에 담긴 1920년대는 김일성이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때이다. 그런데 그가 조선로동당의 부대이며 혁명 역사의 출발이라는 반일 청년 투쟁 조직으로 터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했다는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해방 이후 북한이 공산주의로 자리매김

을 하면서도 이런 기록은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1968년 이런 주장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회고록으로 남겼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라는 것인가?

김일성의 회고록은 한 마디로 북한의 공산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날조, 왜곡, 그리고 개입의 이상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대 선전용임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책을 북한에서 마땅한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출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본 것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2011년 대법원에서 이 책을 '이적 표현물에 해당 한다'며 법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반국가 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고,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들은 김일성의 회고록이 너무나 허

황되고 그들의 이상화를 위한 것으로, 오히려 그 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나는 해방 후 알고 들었던 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 책의 출판에 허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3대 세습과 1인 집 대 독재와는 다르게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장서를 세우고 국가를 운영한다. 그래서 법률에 의하여 어떤 이적물(異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법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법치적인 행위들이 줄어들어 늘어날 것 같다.

둘째는 어떤 이적물을 인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책을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에 검토 교육감과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이적물을 구입하여 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것이다. 도

황되고 그들의 이상화를 위한 것으로, 오히려 그 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나는 해방 후 알고 들었던 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 책의 출판에 허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3대 세습과 1인 집 대 독재와는 다르게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장서를 세우고 국가를 운영한다. 그래서 법률에 의하여 어떤 이적물(異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법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법치적인 행위들이 줄어들어 늘어날 것 같다.

둘째는 어떤 이적물을 인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책을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에 검토 교육감과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이적물을 구입하여 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것이다. 도

황되고 그들의 이상화를 위한 것으로, 오히려 그 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나는 해방 후 알고 들었던 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 책의 출판에 허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3대 세습과 1인 집 대 독재와는 다르게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장서를 세우고 국가를 운영한다. 그래서 법률에 의하여 어떤 이적물(異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법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법치적인 행위들이 줄어들어 늘어날 것 같다.

둘째는 어떤 이적물을 인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책을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에 검토 교육감과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이적물을 구입하여 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것이다. 도

황되고 그들의 이상화를 위한 것으로, 오히려 그 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나는 해방 후 알고 들었던 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 책의 출판에 허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3대 세습과 1인 집 대 독재와는 다르게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장서를 세우고 국가를 운영한다. 그래서 법률에 의하여 어떤 이적물(異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법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법치적인 행위들이 줄어들어 늘어날 것 같다.

둘째는 어떤 이적물을 인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책을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에 검토 교육감과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이적물을 구입하여 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것이다. 도

황되고 그들의 이상화를 위한 것으로, 오히려 그 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나는 해방 후 알고 들었던 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 책의 출판에 허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3대 세습과 1인 집 대 독재와는 다르게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장서를 세우고 국가를 운영한다. 그래서 법률에 의하여 어떤 이적물(異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법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법치적인 행위들이 줄어들어 늘어날 것 같다.

둘째는 어떤 이적물을 인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책을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에 검토 교육감과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이적물을 구입하여 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것이다. 도

황되고 그들의 이상화를 위한 것으로, 오히려 그 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나는 해방 후 알고 들었던 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 책의 출판에 허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3대 세습과 1인 집 대 독재와는 다르게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장서를 세우고 국가를 운영한다. 그래서 법률에 의하여 어떤 이적물(異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법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법치적인 행위들이 줄어들어 늘어날 것 같다.

둘째는 어떤 이적물을 인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책을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에 검토 교육감과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이적물을 구입하여 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것이다. 도

황되고 그들의 이상화를 위한 것으로, 오히려 그 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나는 해방 후 알고 들었던 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 책의 출판에 허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3대 세습과 1인 집 대 독재와는 다르게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장서를 세우고 국가를 운영한다. 그래서 법률에 의하여 어떤 이적물(異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법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법치적인 행위들이 줄어들어 늘어날 것 같다.

둘째는 어떤 이적물을 인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책을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에 검토 교육감과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이적물을 구입하여 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것이다. 도

황되고 그들의 이상화를 위한 것으로, 오히려 그 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나는 해방 후 알고 들었던 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 책의 출판에 허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학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신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입점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단 부산지방법원 중장형 한경원 부사와 고영환 부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 A/B/온돌, 단체룸)



하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익로길로 479번길 43

교단공과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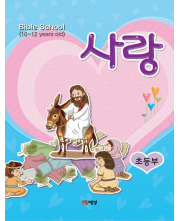
출판헌금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②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아동부 공과교재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① Fax: 02)2677-5181, 031)441-1793
② e-mail: aogk@aogk.org
③ 입금계좌: 농협 355-0053-3758-9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은혜와진리교회

문의

전 화: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ASSEMBLIES OF GOD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동웅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고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신상우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고재권(아산경찰서장), 황재만(아산시의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1대학교 교수)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공통회장 진동웅 목사, 노선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용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준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지도위원 박차영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부회장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원원 목사, 정병환 목사, 윤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박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익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정환 목사, 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송화섭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홍규 목사, 고영기 목사, 박성화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서기** 정수희 목사 **회계** 박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상임총무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김중권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안상욱 목사, 안준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완 목사

후원회 한상문 장로, 배성현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재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익덕 장로, 신요선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상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문 장로, 박노환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박성기(U1대학교 교수)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 메를농물집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험)
(*고려대학교 송용석 교수님 암세포로 세계특허)
2) 콜리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암, 항염, 항염, 항염, 항염(경희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 타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 호르몬,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 사포닌 : 면역력 증가
6) 칼슘 : 홍채의 24배, 뼈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밀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잔디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 식이섬유 : 타식물(대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 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 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 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0) 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1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평등이란 하늘로 국민을 기만하고 가정 해체, 도덕 파괴, 양심을 억압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나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지는 기본법의 취지를 파괴하는 개정 법률안으로 현행법에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을 통해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혼인이나 혈연, 입양이 아닌 관계도 ‘가족’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즉각 철회하라!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나쁜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안” 추진을 엄중히 경고하고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추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말은 사람을 미혹하기 좋은 표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불평등 법이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사회 전반에서 동성 성행위에 대한 합리적 비판조차 혐오와 차별로 규정,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도 내부 규율을 통해 ‘동성 성행위’나 ‘성전환’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차별’과 혐오로 매도당하고, 고용 및 경제적 사법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동성 성행위나 성전환의 피해는 은폐된 채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동성애의 보건적 해악을 알리는 것은 혐오와 차별로 처벌하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만 조장하고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재갈 물리겠다는 불평등을 내재한 독재법이 아닐 수 없다.
 동성애 옹호 문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다.
 청소년 유해 매체로 규제하던 동성애 코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으로 해제 (2004년)된 이후 청소년들이 동성애 웹툰과 웹 소설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결과 청소년 에이지 친구 감염이 매년 수

백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동성애의 보건적 해악을 알리지 않고 동성애 옹호 교육만 조장한 결과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공권력으로 개인과 가정의 윤리관을 통제하는 나쁜 평등법,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재갈 물리는 동성애 독재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 역행하는 것인바 이상민 의원은 건강한 성 윤리와 생명윤리를 지지하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경청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조장하며 가정 해체, 도덕 파괴, 양심 억압하는 나쁜 평등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나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지는 기본법의 취지를 파괴하는 개정 법률안으로 혼인이나 혈연, 입양이 아닌 관계도 ‘가족’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것은 서구의 반기독교적 성 혁명론자들이 ‘가족 해체’를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 차별금지’란 명분을 따라하는 것으로 ‘혼인, 혈연, 입양’이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동거, 공동 거주자’도 가족으로 등록하게 하면서, 동성혼도 합법화하게 되는 문장을 어는

것이다.
 한국은 출산의 98%가 혼인한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출산은 심화될 것이고 잘못된 가족 개념이 옳다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세뇌하며 그것들을 신앙적 신념이나 양심을 기초로 비판하는 국민들은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로 몰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곧 비정상적 정상이 되는 사악한 법안이다.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는 남성이 자기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여자 탈의실, 여자 침실 등을 사용하게 하고 여성 운동경

기에 출전하게 하여 여성 선수들의 금메달의 꿈을 짓밟는 행태를 초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해 온 것이다.
 ‘종교 차별금지’에는 한국에서 이슬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음식이 이것은 행정 분야의 종교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한국의 일부 정치세력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위와 같은 악법과 조례를 발의하고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키려는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경북기독교총연합회 신하 2,500여 교회와 성도들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을 가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반대한다.

- 다 음 -

1.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양성평등을 거부하는 동성애 합법화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2.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악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3.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 보호법이며 동성애 반대자 처벌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4.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자 역차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5.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가정 파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6.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반성경적이며, 반기독교적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2021년 5월 5일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신재영 목사 외 임원 일동

“가정을 해치는 악법 제거해야”

미래목회포럼 17-2차 포럼·인구감소 지속…대안 찾고, 반응하고, 움직여야



오성호 목사
미래목회포럼 대표
세로남교회 담임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성호 목사)은 지난 5월 14일(금) 오전 11시 대전 세로남교회(담임 오성호 목사)에서 ‘저출산에 대한 기독교적 대책은?’이란 주제로 제17-2차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들어 급격한 저출산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감소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관련 한국교회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확인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세계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포럼은 미래목회포럼 대표 오성호 목사의 인사 및 기도로 시작되어 포럼회장 이상대 목사(미래목회포럼 총괄본부장)의 인도로 순서가 이어졌다. 오성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사상 첫 인구감소를 기록하며 이어 올해도 계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어영, 청소년, 청년 인구는 줄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미래가 밝은 대한민국은 좌초되고 말 것이며 우리 교회는 대안을 찾고, 반응하고, 움직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성교육을 시키고 저출산문제를 극복하려는 교회를 적극 도우며 가정을 해치는 악법을 제거하라고 제언할 것”이라고 전하고 “우리 민족은 어려울 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살아왔으며 이제는 실현해야한다. 우리 미래목회포럼과 함께 어린 아이들이 많아져서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을 소망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울신대 백선희 교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과 비영리 부분의 협력 과제 및 주제를 발표했다. 백 교수는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소개하며 “이번 계획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장사의 유연한 전환 지원, 성평등한 노동권 보장,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서비스 공공화·책임성 강화, 아동 성악에 필요한 소득·주거·보육·안전 등 기본권 보장, 생애 전반적·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했다.

백선희 교수는 “전반적으로 세계가 저출산인데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할 독일 등 함께출산을 이 울라간 선례가 있으므로 이유를 분석해보고,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문제 해결은 정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종교기관 포함 해 모든 사회 구성원 사회 주체가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영리 부문 협력 사례로 2009년 전국 567개 단체가 참여한 16개 지역본부 출범한 ‘아이날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교회 등 종교계 참여, 서울시 돌봄공동체·경제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회 협력, 아동 생존·발달·보호·참여권 존중, 육아보장을 위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 교계 기관들의 저출산 문제의 공동 협력 등을 들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세미나교육연구원 원홍수 박사가 ‘저출산 극복한 이스라엘의 세마교육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원 박사는 “저출산 극복한 이스라엘의 세마교육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원 박사는 “저출산 극복한 이스라엘의 세마교육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정통파 유대인 공동체에서 20년간 캄비들과 생활하면서 40여 권의 유대인 관련 저서를 출간한 원홍수 박사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율은 지속될 것이며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인 문제는 하나님을 인권을 존중하는 목회와 인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인간은 결혼해야하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는지를 가르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박사는 유대인과 한국인의 출산율에 큰 차이가 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한국인은 결혼 목적을 보통 ‘개인의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 즉 구약의 지상명령적 측면에서 ‘성경적 자녀’의 생산(창 2:15)과 ‘말씀 받은 자’(창 3:2)로서의 약속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약의 지상명령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상명령으로 가정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자손대대로 전수하고, 의와 공도를 지기 행하라는 명령(창 18:19, 신 6:4-9)”이라고 설명했다.

원홍수 박사는 또 “자녀를 많이 낳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양육하는지도 중요하며 유대인 탕무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내를 가진 자에게만 내린다’ ‘모든 교사는 아내를 얻지 않으면 안 되며, 모든 랍비는 결혼한 사람이야만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 교사의 조건은 신약시대 바울의 교훈에도 그대로 나타나 감독, 장로, 집사가 될 조건은 아내를 가지고(딤후 3:2-5, 12, 1:6),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딤후 3:4, 12),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1:6)라고 한다”고 말했다.

원홍수 박사는 “물론 이스라엘 정부의 협조와 바른 성교육도 유대인의 높은 출산율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한국도 국가정부가 인구 증진을 위해 협조하고, 공공교육에서 자녀에게 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제언으로는 “한국 정부가 세마교육을 장려하지 않는다면 교회만이라도 세마교육을 장려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기독교 인구 1,000만 명이 세마교육을 장려하여 가정마다 자녀를 많이 생산하면 머지않아 20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마교육을 실천하면 자손 대대로 신앙도 전수될 수 있다”며 “자녀 생산은 세상이 지남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몇몇 세대는 대한민국이 신분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은 이어 직전회장 고영진 목사, 중앙위원회 안 목사가 패널로 나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르치고,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표를 통해 선 포하여 저출산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제안했으며 이후 이사장 정성진 목사의 마침기도로 일정을 마쳤다.

영풍회 28회 부흥사연수원 개최 ‘뜨겁고 절실한 부흥의 사명으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면 큰 그릇이 되고 유익이 된다”

한국기독교영양문화연구원(이하 영풍회)은 지난 5월 11일(목) 오전 10시30분에서 제28회 부흥사연수원을 개최하고, 예배의 위기 앞에서 뜨겁고 절실한 부흥사명의 회복을 소망했다.

간(성) 목사와 강(수) 목사, 한영호 목사, 강정훈 목사가 강사로 나선 이번 연수원에서는 △선지자적 전하는 메시지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 △기도로 영적 능력을 축적하라 등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다.

한영호 목사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예배의 위기 앞에 속수무책이고 기도도 전도는 다다음 어려움을 겪으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의심할 수 없”에 우리는 다시 부흥의 길로 나아가고 일어서야 한다”면서 “발상과 기도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별히 이 목사는 “새에 열매인다면 진정한 영성이 회복될 수 없다. 삶과 관계없이 성도들의 삶과 관계없이, 가정과 관계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라 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에게 길을 열어주시길”이라고 결론을 촉구했다.

이 목사는 “이번 한국기독교영양문화 부흥사연수원



을 통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없는 시련의 길이 크게 열릴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부흥사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놀라운 기수들”이라고 독려했다.

강의를 앞서 드려진 개회예배는 김수아 목사(준비위원장)의 인도로 서예집 목사(총사역본부장)가 기도하고, 최선 목사(사역가)가 딤후 1:7-9 말씀을 묵상한 후 이영훈 목사(영양문화)의 축복이 이어졌으며 최성준

경회장이 ‘부흥사의 리더십’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최 회장은 “다른 사람의 재주를 흉내내지 말라. 자 신만의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발견하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 버리고 하시는 것을 버리면 반드시 큰 그릇이 되고, 취하고 하시는 것을 취하면 큰 유익이 된다”고 피 려했다.

신간 안내

예수를 만나다



예수님 당시의 많은 사람이 자신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든 생활학적 후손이 하나님께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답할 것이다. “물론이지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요. 저는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회도 다니요.” 하지만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없다. 누구도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거나 특정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저자/역자: R. C. 스프로울/형영환 | 출판사: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2021-04-30 | (128*183mm 128p | 판매가: 7,000원

윤형철 교수의 조직신학 골립

교회는 다는데 믿는 자 한결같다면 정리가 필요할 때, 질문별로 핵심만 콕 찝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궁금한 한데 박상 교회에 가서 물어보기 민망한 질문들을 이 책이다. 이런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교회에서 걸도는 대화를 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궁금증은 때로 유체해 보이고 때로 머리 아픈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지한 신학적인 질문들을 품고 있다. 그렇다면 두꺼운 신학 책을 보기는 겁나면? 조금씩 골립을 잡아들자. 이름은 어려울 보어도 조직신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 세상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한 바퀴 돌며 여행하게 해준다. 조직신학의 입문서이자 주제별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다루는 40가지 질문을 뽑았다.

저자: 윤형철 | 출판사: 홍성사
발행일: 2021-05-03 | (110*183mm 224p | 판매가: 14,000원

한자 심방

한우·호스피스·사별자 돌봄 현장 지침서



이 책 《한자 심방》은 저자가 수만 명의 한자를 심방하고 6천명 이상을 한자 심방 경험에 토대로 쓴 것이다. 심방하는 사람(환자) 또는 방문도이 한자를 대할 때의 주의사항은 물론 소용하는 방법도 친절히 알려준다. 한자의 상태에 따른 대처 방법에서 등장하는 실제 한자 심방의 사례는 한자 심방에 특별한 관심사가

책임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한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삶과 질병과 죽음에 대해 깊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돕는다. 이 책이 단순한 한자 심방 지침서를 넘어, 삶과 죽음에 대해서까지 생각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 책은 또한, 단순한 한자를 방문하는 일을 넘어, 호스피스와 같은 전문 영역에 대한 지침도 주며, 특히 한자의 가족을 이해하고 돌보는 ‘사별자 돌봄’ 영역까지 다룬다.

저자: 박남규 | 출판사: 아르가
발행일: 2021-05-11 | (148*210mm 334p | 판매가: 19,000원



인생 잠언·행복편

이 책은 《인생 잠언》 시리즈(행복, 성공, 행복) 중 행복편으로 잠언 22-31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갈망한다. 부와 명예를 가졌다고 행복하겠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다. 행복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영토부터 온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은 주신 행복의 공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에서도 잠언은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실천해야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이 책에는 최고 지혜자들의 조언과 격려가 가득하다. 이 책을 보면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이 세상 어떤 행복도 부족보다 더 분명히 우리 삶에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저자: 황명환 | 출판사: 도서출판 두란노
발행일: 2021-05-12 | (150*210mm 314p | 판매가: 17,000원

미래목회포럼-청예본, 청소년 중독예방 협력키로

미래목회포럼대표회장 오성호 목사는 지난 5월 14일(금) (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이사장 홍호수 목사, 이하 청예본)와 MOU를 맺고 중독의 최대 피해자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78 세로남교회(담임 오성호 목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미래목회포럼 대표회장 오성호 목사와 청예본 홍호수 이사장이 협약서에 공동서명하며 청소년 중독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홍호수 이사장은 “전진한 문화,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상을 세우고 한국교회의 허리가 튼튼해지도록 노력하고,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여 참신자로 서 다음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한국교회 신그랜드 역할을 감당하는 미래목회포럼과 함께 하기를 감사드리고 청소년중독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회장 오성호 목사는 “다양한 방 면에서 중독이 만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와 협력하여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한편 청예본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유튜브를 통해 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온라인 전략과 군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독예방 정신교육을 위한 교재를 제작하고 있다. 나아가 8대 중독과 성취적 재원을 만화과 웹툰 그리고 유튜브 영상로 제작하고 있다.

청예본은 2023년 세계 중독예방 학회를 초청해 국제학대회 및 중독예방 엑스포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청소년 중독예방과 관련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신문발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대책, 선교사 위한 긴급 의료비 모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미션 NGO 희망진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를 돕기 위한 ‘코로나19 선교사 긴급지원 캠페인’을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고 지난 5월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생환하는 기대봉사단에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원 긴급이송 필요 및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중엔 국제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현장을 지키는 기대봉사단이 죽음의 위기

를 이기고 계속 사역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과 후원으로 동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기아대책은 작년 10월에도 ‘코로나19 선교사 긴급지원 캠페인’을 한 달간 진행한 바 있으며 겨울에는 코로나19로 사역 중단 등의 위기에 놓인 기대봉사단을 위로하고 중보하기 위한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희망진구 기아대책은 1989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로, 기아대책 전문인 사역자 ‘기대봉사단’을 전 세계 50여 개국에 파견해 먹고 복을 사역을 하고 있다.



가수 비아이, 앨범 수익금 전액기부

기부금은 국내외 위기아동 구호사업에 사용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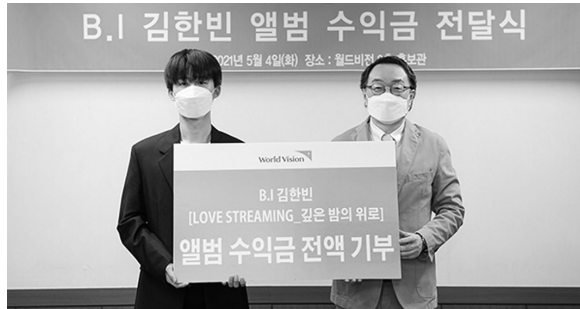
월드비전은 가수 비아이가 앨범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고 지난 5월 4일 밝혔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광현)은 4일, 비아이(B.I)의 한정판 기부 앨범 ‘깊은 밤의 위로’ 수익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비아이는 지난달 19일 음약이 올려 퍼즐수록 세상의 온기가 되는 마음을 전한다는 ‘LOVE STREAMING’ 프로젝트 기획하고 앨범 ‘깊은 밤의 위로’를 발매했다. 앨범 발매 당시 저작권료, 음원·음반 판매 수익, 콘서트 수익 등 전액을 월드비전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4일 월드비전 본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깊은 밤의 위로’ 앨범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비아이는 “취약한 환경에서 자란들 보다 더 열악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아동들을 위해 후원금이 쓰여지길 희망한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전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부금은 국내외 위기아동 구호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시류 60년간 보정되는 음원 저작권료 기부 협약을 통해 꾸준히 국내외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자립과 회복을 위해 선정을 아끼길 예정이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복 받은 노아의 가정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면서 가정의 달이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 받은 자들이다. 성경에 많은 복 받은 가정이 나오는데 특별히 노아의 가정이 복 받은 것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이와 같이 복 받은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길로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창 6:11) 하나님



께서는 이 세상이 모두 타락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전파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를 내리셨으며(벧후 2:5) 노아와 그 일곱 식구는 세상 끝 날을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홍수심판이 있을 때까지 가족을 모두 전도했다.

일가친척 가족들을 전도하여 구원을 확증 받았으니 이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은 복 받은 가정이다.

박영수 목사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문화선교 TV 방송 대표
평내순복음교회 담임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392-1691, 01018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청소년 생명나눔 홍보단 온(溫)택트 1기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청소년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 이하 본부)는 지난 5월 8일(토) 오후 1시 서대문구 중정로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청소년 생명나눔 홍보단 ‘온(溫)택트 1기’ 발대식을 진행해 15명의 단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학생 4명만 참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비대면 방식(Zoom)으로 함께했다.

앞서 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전국에 있는 17세~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溫)택트 1기’를 모집했다. 이에 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거나 평소 생명나눔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 60여 명이 지원하였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15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날 본부 공동엽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남이 제한된 인력만 시대에 생명나눔의 온기를 전하



는 온(溫)택트 1기로 활동하게 된 학생들을 환영한다.”며 “장기기증의 따뜻한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청소년들에게 전하 생명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매진자가 되어달라.”는 뜻을 전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정승민 군

(19)은 “장기기증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청소년들이 여럿이다.”며 “홍보단 활동을 통해 생명나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혼모자 시설 ‘꿈나무’에 정착지원금 지원

한교연,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올해 7회째 진행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난 5월 12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꿈나무’에서 사후에서 소외된 채 외롭게 아기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이 꿈과 희망



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행사를 마련했다.

한교연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옥자 목사)가 매년 5월에 개최해 온 미혼모 돌봄 나눔 사업은 올해로 일곱 번째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꿈나무’가 최근에 동작구 상도동에서 구로구 오류동으로 이전한 후 가진 첫 번째 행사였다.

이날 예배는 상원로장 김효종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김학범 목사가 기도하고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위기 속에 기적’ (창 2:1-1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태섭 목사는 설교를 통해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마비율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gargle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컵속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갑기예방 7.잇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기밀의 효능)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v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3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3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웅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돌봄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의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계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 (박흥열 목사 수석경리)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정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정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을면 금율로 82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초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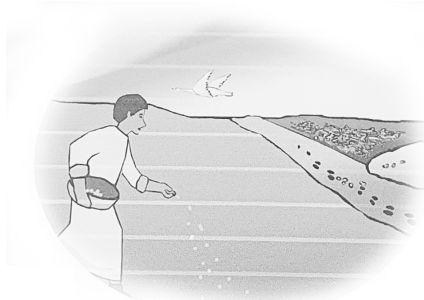
전혜수 // 은혜와 진리 회화 권사

뜻대를 향하여...

희노애락 사연의 옛사람 내 모습
이천 년 전 베푸신 놀라운 주사람
깨닫는 맘 보는 눈 듣는 귀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자녀 되었네

지나간 사연들 보혈의 강 지날 때
눈같이 희어져 기억조차 없애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사는 인생되니
에덴이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네

뒤엎고 잊고서 뜻대 향해 가는 인생
시민권 주셨으니 무엇이 두려우랴
예수 안에 새생명 부활생명 얻는 길
복음 씨앗 뿌리며 천국 향해 나아가네



무더운 여름날
전도사님과 구역심방을 마치고
늦은 밤 빌립보서 3:12-21 말씀을 묵상하다.
거듭난 삶이 되어 사방 깨닫고 가는 인생
너무 감사하여 마음을 고백하다.

“위기의 기대, 희망의 메시지 전해야”

실천신학대학원대, 국제 실천신학 심포지움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위기의 시대에 교회
의 역할은 정부의 보건 지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0일 열린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총
장 이경의 목사) 국제 실천신학 심포지움에서 미하
엘 벨커 교수(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가 주강
말이다.

이날 미하엘 벨커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한 교회의 책임있는 태도를 강조했다. 벨
커 교수는 “최고의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삼은 보
건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가 희망의
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
을 위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그는 “피조세계에 대해 인간에게 맡긴
하나님의 통치위임은 인간의 상호 책임감있는 관
계를 요구한다”며 “전염병 대응의 시기에 과학적

지식과 그로부터 기인한 보건당국의 조치를 준수
할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벨커 교수는 또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누길 원하신
다”면서 “정의, 자비, 자유, 진리 추구, 이웃 간의 정,
이웃 사랑,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이 힘을 실어주
기 위해서이고 이는 사람들을 통해 매개된다”고 밝
혔다. 그는 “동료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봉하
는 것을 경시하고 침묵하는 일은 지구적 위기의 시
기에 증가할 것이며, 이는 또한 종교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순화열 교수(원광대)가 코로
나19로 변화된 교회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했다. 순 교수는 “코
로나19 국면에서 교회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고민하
게 된 문제는 예배와 성찬 성도의 교제가 중단된
다는 것”이라며 “각각의 행위들에 부여했던 의미를 다
시 생각할 것을 사실상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

힘든 때 일수록 적극 기도해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던 3년 전 한반도에 평
화가 다가오는 양 정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핵 포기가 없는 상황에서 애당초 이는
보여주기에 불과한 의미 없는 남비에 불과했다.

관문잠산안이 전명된 ‘평화의 시대’는 멀뿐이었으
리라 북한이 핵전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 주었고 국
도의 긴장과 대립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그럼에도 정부는
3년 전 추악이 무작이나 그로운 것 같다. 북한은 언제
됐는 듯 상황이 180도로 변화되었는데도 정부는 상대
도 없는 나침반로 평화프로세스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며 다양
한 공격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에도 제대로 된 훈련조차 시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라는 환상에 젖어 대북 저지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가진 수사와 비난을 하면
서도 나름 일정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대외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쏟아
내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해도 막발에 대해 욕을 해대도
‘대화용’ 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외
몰이 되는 이유는 나 홀로의 이상과 야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도리어 문제를 감추려 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북한이 핵고도화를 계
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프로세스를 몰고 있다. 남
은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기회로 삼자는
말 역시 북한을 낚는 듯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인지 고려할 뿐이다. 불가역적 평화 불발하기 전에 불
가역적 북핵 폐기를 분명히 잡아야 한다. 북핵 폐기가 선
행되어야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가능성이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북핵 인권, 쿼드 참여, 대중 압박 공조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이 크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하고 대북 공조에서 물 샴슬 없
는 동맹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이번 기회에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참여 안보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빛이 어려움 때일수록 환
히 빛나야 한다. 각각 자기 일을 돌이켜보라니 또한 각
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빌 2:4) 지금처럼 힘든 때일수록 나라와 교회, 국
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페미니즘 교육강요는 정치적 세뇌다

5월 1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는 총체적인 기차
회전이 있었다. 교육비로 새우기 운동, 당당위, 미래세대
행동, 바른미래여성연합, 성인권센터, 케이프라이프,
한국성경학연대 등이 시민 단체들이 ‘학생 페미니즘 세
뇌’ 교육한 교사 비밀조작을 즉각 수시하리’는 것이었

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이번 학생들에게
지시된 교육의 일환인 정치적 이념교육을 주입하고자 하
는 교사들의 비밀 조작이 지난 4년간 활동해 왔는데, 이
것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발각이 되었다고 한다.

그 교사들 조작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
적이다. 페미니즘 교육을 위하여 회원 교사들에게 지시
서와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데, ‘교사는 청소년이 이
전의 아이들의 실리를 이용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대로는 아이들 간의 정지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별화생은 지도목이면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재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을 조부모
양육 또는 보육원’으로 상담 혹은 학교생활 상담이라

는 명목으로 선별하기 바란다’ ‘적립 포탈에서 작업량
을 확인 후 반드시 활동량을 채워주기 바란다’는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지령을 통해 내리는 듯한 것들이
울려와 있다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이들은 교
육을 통해 바른 인성과 인성 그리고 지식 습득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데 페미니즘에 강도(過度)된 교
사들이 비밀조작을 통한 아주의 도발 세뇌교육으로, 자신
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정치적인 희생물로 삼고자하는
악의(惡意)를 아예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남북관계로 페미니즘은 시대를 추세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인데, 유독 한국에서
만 진행되는 페미니즘이 억울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현재 오후 6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번 교사
들의 잘못된 비밀 조작을 밝히고 처벌해 달라는 것에
27만 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옳은 목
소리를 의외지 않게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문: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배성환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부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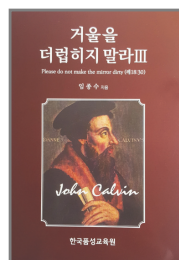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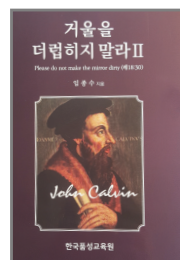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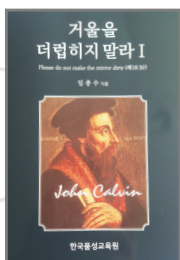
웹사이트: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일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
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
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따
가기는 영적훈련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
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
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
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불러야 할 세력들 즉 집과 국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
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
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입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익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익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도바울의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열심.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수시
-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